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2.28(금) ~ 2025.3.6(목)

제공일시 2025 3 14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2.28(금) ~ 2025.3.6(목)

제공일시 2025 3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EU, 車업계 반발에 탄소규제 3년 유예... '전기차 가속'에 브레이크

- 유럽연합(EU)이 올해 예정됐던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과징금 부과를 3년 미루기로 함. 유럽 자동차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관련 회의 뒤 'CO₂표준 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준비하겠다고 발표함
-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임. 개정안이 EU 27개국과 유럽의회 표결을 통과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올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음. 목표치 달성은 3년 안에 이루면 됨
- 다만, EU의 규제 유예가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함

[\(중앙일보 2025.3.4\)](#)

2. 인니, DME 생산 등 에너지 프로젝트 21개 추진... 총 60조원 규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약 6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21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4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바홀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21개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총투자액은 400억달러(약 58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각종 원자재 에너지 관련 산업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국가 경제 성장 촉진을 이룰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가 21개 프로젝트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것 중 핵심 사업은 디메틸에테르(DME) 생산 프로젝트임. DME는 석탄을 열분해해 추출한 가스를 액화한 것임

[\(연합뉴스 2025.3.4\)](#)

3. 태국, 이달 내 탄소세 도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적용 예정

-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닷케이 신문이 보도함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은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국가 또는 지역별로 6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세안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100년마다 180억달러(약 26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음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내 기업의 탈탄소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5.3.5\)](#)

국내 정책

1.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100조 샷' 반도체·바이오·AI 지원한다

-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됨
-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함
-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이고, 기금의 주체는 한국산업은행임
-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한 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이 해당됨.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속한 업종인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AI도 지원 대상임

[\(머니투데이 2025.3.5\)](#)

2. 中企 ESG 실사 대응 지원... 중기부, 통합 솔루션 구축 착수

- 중소기업이 EU 공급망 실사와 글로벌 ESG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SG 통합 솔루션'이 구축됨
- 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ESG 규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EU-ESG 통합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
- 국내 원청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전략과 공급망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기존 ESG 체크리스트(2.0, 3.0 버전)를 고도화해 산업별 특화 지표를 추가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5.3.3\)](#)

3. 정부, 3년간 14.1조 개도국 지원... 공급망협력·아프리카 확대

-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4조1000억원을 승인함.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7조원을 집행할 예정임
- 공급망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과 함께 중점 분야로 지정하고, K-파이낸스 패키지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사업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전략임
-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2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함
- 올해 승인 금액은 전년목표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조6000억원임. 매년 1000억원씩 지속 확대해 3년간 총 14조1000억원 승인할 예정임

[\(뉴시스 2025.2.27\)](#)

글로벌 기업

1. 에어리퀴드·토탈, 네덜란드 그린수소 사업 '1.5조' 투자

- 산업용 가스기업 에어리퀴드와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네덜란드 그린수소 사업에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함
- 양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스블락테와 제일란트주(州)에 그린수소 플랜트 2기를 건설할 예정임. 투자액은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됨
- 이는 토탈에너지스와 RWE가 공동 개발한 오란제윈드 해상풍력단지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임. 마스블락테와 제일란트에 각각 200MW·250MW 전해조를 설치해 연간 총 4만50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됨

[\(더구루 2025.3.2\)](#)

2. 中 1위 전기차 업체 BYD, 유럽에 세 번째 공장 짓는다

-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가 유럽에 세 번째 공장을 지음.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부과를 시작한 가운데, 현지 공장 건설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임
-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텔라 리 비야디 수석 부사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세 번째 유럽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힘. 그는 “내년 상반기 안에 세 번째 유럽 공장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 위치와 설립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함

[\(조선일보 2025.3.4\)](#)

3. 폭스콘, 정저우에 신사업 글로벌 본부 건설 착공... EV·반도체 등 다각화 본격화

- 폭스콘(Foxconn)이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신사업 개발 그룹을 위한 글로벌 본부 건설에 착수함
- 이는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계약업체로 잘 알려진 폭스콘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성장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고 28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3.1\)](#)

4. 인도 아다니그룹, 美 100억 달러 투자 계획 되살려

-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기업 아다니그룹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되살린 것으로 전해짐
-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다니 회장의 측근들은 최근 아다니 그룹이 원자력과 유틸리티, 미국 동부 해안 항구 등 부문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재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인포맥스 2025.3.2\)](#)

국내 기업

1. 삼성, 日 의존 반도체 소재 국산화 힘쓴다

- 삼성전자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작업에 다시 속도를 높여 주목됨.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언제든지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석으로도 읽힘
-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불화아르곤(ArF)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삼성 측은 이를 위해 ArF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 중인 에스앤에스텍과 긴밀히 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업계 핵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소량의 국산 ArF 블랭크 마스크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특정 공정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평가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2025.3.3\)](#)

2. 현대차, 튀르키예에서 전기차 생산… “유럽시장 정조준”

- 현대차가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에 나설 예정임
-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부터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에서 전기차 양산에 착수할 계획임. 현대차가 이즈미트 공장에서 생산할 전기차 모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B세그먼트(소형차) SUV 모델로 예상됨.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튀르키예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임

[\(뉴시스 2025.3.4\)](#)

3. SKT ‘차세대 액체냉각’ 개발 파트너십, AIDC 에너지 효율 ↑

-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액체냉각 기술 개발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함. SKT는 액체 냉각 분야의 선두주자인 기가 컴퓨팅(Giga Computing), SK엔무브와 차세대 냉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힘
- SKT는 이번 글로벌 기술 협력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전력·발열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함

[\(머니투데이 2025.3.5\)](#)

4. LS에코에너지, 베트남 해저 케이블 시장 개척 착수

-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 영업소를 설립하고 동남아 시장 개척에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힘. 회사 측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베트남(Petro Vietnam) 그룹의 자회사 PTSC(Petro Vietnam Technical Service Corporation) 관계자들이 LS전선 강원도 동해 해저 케이블 공장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함
- LS에코에너지는 PTSC 및 계열사, LS마린솔루션과 함께 해저 케이블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검토할 예정임

[\(뉴시스 2025.2.27\)](#)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2.28(금) ~ 2025.3.6(목)

제공일시 2025 3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 발표

-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급격한 기술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았음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일(현지시각) 유럽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특히,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8억유로(약 2조8100억원)를 투자할 계획임

- 우선, 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해 업계의 유연성 요구를 수용해 규제 완화를 추진함. 집행위는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이달 중 제안할 계획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5~2027년 사이 제조업체가 연도별 배출량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해 한 해의 초과 감축분을 다른 해의 초과 배출분과 상쇄할 수 있도록 함

- EU 내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용 경쟁력을 갖춘 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한 금융 지원이 강화됨. 집행위는 배터리 생산 기업에 대한 직접 생산 지원을 검토하고, 공급망 복원성 요건과 같은 비가격 기준(non-price criteria)을 부품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EU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무역 방어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 특히, 반보조금(anti-subsidy) 조치 등을 통해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 협상을 지속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임. 또, EU 자동차 산업 내 해외 투자가 업계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며, 동시에 규제 간소화를 통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EU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 및 AI 기반 차량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행위는 '유럽 커넥티드·자율주행차 연합(European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Alliance)'을 신설해 업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차세대 차량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 또, 대규모 테스트베드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조성해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을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025~2027년 동안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10억유로(약 1조5600억원) 규모의 민간 공동 투자가 추진됨

- 자동차 산업의 인력난 및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유럽 공정 전환 관측소(European Fair Transition Observatory)'를 통해 미래 고용 불균형 지점을 분석하고,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확대해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또, '유럽사회기금+(ESF+)'을 활용해 자동차 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근로자의 재교육과 전환 지원도 추진함

[\(임팩트온 2025.3.6\)](#)